

투데이 칼럼

문화가 어우러진 부안마실축제에 초대 합니다

**바** 람은 산들산들, 아지랑이는 모락모락, 올해도 봄이 무럭 무럭 잘 자라고 있다. 점심나절 파스헤진 바람을 벗 삼아 부안군청 뒤 서림공원에 종종 오르내리곤 하는데 종턱쯤 오르다 보면 커다란 표지석에 13만 군민의 의지 라는 음각으로 질게 새겨진 문구가 눈에 띈다. 생각해 보니 우리 부안에 인구 13만 명인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부안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6만을 밑돌고 있지 않나. 얼마나 더 인구가 줄어들까? 여러 생각과 함께 미래 우리 부안에 대한 걱정스런 생각이 앞선다. 인구수가 부의 척도는 아니지만 인구와 비례된 문화와 교육 등 지역의 거주환경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문화는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이 정주여건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는 부분이다. 또 문화는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최근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매력일 것이다. 문화는 각각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삶의 방식에 따라 지역마다 개성있고 독특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그러한 지역 문화가 녹아들어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축제이다. 사실 축제는 종교와 제례의식에서 출발해 추수감사절 등 가을 수확기에 맞춰 개최돼 왔으나 요즘의 축제는 지역의 특색과 자연여건에 맞게 사시사철 개최되고 있다. 그중 5월의 축제는 푸른 신록에 눈이 시원하고 앞 다퉈 피어나는 꽃 향기에 코가 취하고 주꾸미, 갑오징어 등 산해산미에 입이 호강하

고 연인과 가족들의 하하호호에 귀가 즐겁고 부드러이 실결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온몸이 깨어난다. 5월 열리는 부안마실축제는 그러한 축제이다. '어화세상 벗남네야 북받으며 마실가세'라는 주제로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부안마실축제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소도를 거리축제로 거듭나 흥행에 성공했다. 올해도 역시 거리축제로 개최되며 예년의 부족한 점과 불편했던 점을 적극 개선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토록 민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거리축제의 백미인 각종 퍼레이드

와 신나는 물총페스티벌, 부안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통놀이, 체험 등 42개 프로그램은 어느 것 하나 놓치기에 아까울 정도로 정성을 기울여 만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안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600주년이 되는 '부안 정명 600주년'의 해이다. 오랜 세월동안 한 지명을 유지하며 전해오는 지명이 전국에 몇 군데 되지 않는다. 그만큼 6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독특한 지역문화를 가꿔가고 있다. 역사는 만들어 가는 것이고 전통은 가꾸어 가는 것이다. 문화는 그곳에 자연스레 자리잡게 되고 축제는 이러한 문화의 표현이다. 울 봄, 봄꽃들이 만개하는 5월 부안을 찾아보자.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안에서 소통과 화합, 즐거움이 가득한 대동한마당 '부안마실축제'가 여러분께 강녕의 복, 휴식의 복, 재물의 복, 풍류의 복, 자금의 복 등 오복을 선물해 드릴 것이다.



이경신 부안군 재무과장

독자제언

가정폭력 예방 첫걸음 가족 간 존중문화 정착

우리는 그 동안 가정폭력을 개인 가정만의 문제로 생각할 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 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등 경찰의 개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의 행위자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가정 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친척이나 이웃 등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되며, 어릴 적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경우 아이들은 부모의 폭력을 따라하는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내게 된다. 얼마 전 순창경찰서에서는 순창고 학생들과 4대 사회악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인식하기 위한 연극을 선보였다. 가정폭력을 보고자란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 현상을 연극으로 표현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사회화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간 존중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 폭력의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으로부터 비롯되고 이러한 말다툼 속에는 욕설과 비난 등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행이 바탕이 된다. 가정폭력 또한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종국에는 폭력으로 발전되는 데 가정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욕설과 비난 등의 행위가 계속 누적될 요소가 크고 이로 인하여 폭력이 발현될 가능성 또한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시작은 가족 구성원 간 서로를 무시하는 사소한 언행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경찰력 개입 및 시민들의 신고에 선행하여 가족 내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 정착 시키는 것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영이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전동 교통수단 교통법규 제정 시급

화사한 봄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스마트 모빌리티(전동 교통수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동하기도 편한 스마트 모빌리티는 점점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모빌리티관련 교통법규의 부재는 상당한 문제점을 낳는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다보면 인도,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야할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동제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않고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교통법규가 없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차도에서 탈수밖에 없으니 상당히 위험하다. 인도로 다니면 차대 사람으로 인한 사고로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차도에서도 차대차로 적용되어 상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사용자에게 불리하다. 심지어 보편차로도 불가능하며 그와 관련된 보험도 일질없는 상황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각광을 받으며 대세 유망산업중 하나로 성장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선 이미 세분화해 법을 규정

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에고만한상태로 언제 제정될지는 모르는상황이다. 스마트모빌리티는 차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독신이 늘고있는 현 시점에서 1인 가구의 이동수단,품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편리한 이동수단이 된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제공해 줄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이런 편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관련 법률제정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도 다 구비하지못한 도로에선 새로운 길을 만들수없으니 자전거도로를 같이 이용할수있게끔 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줘야한다. 또 사용자는 대중화되고 보급화되어가면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그래야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원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사설

도내 대형마트에 거듭 당부한다

도내 대형 마트에 당부할 말이 있다. 협조 정신을 배양해줘야겠다. 지금 도내 대형 마트들이 보이는 영업 방식은 도민의 정서로 볼 때 아박하다. 도내 대형마트들은 지역 주민과 조화하려는 정신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전북도와 전주시가 상생 협조를 요구했을 때가 생각한다. 재래시장과 골목의 영세한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었을 때 도내 대형 마트들이그에 순응하고 따라주었던 게 고마워서 말이다. 그것은 놀랍고도 신선한 변화였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고 보니 그게 그저 그것 뿐이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할 말이 누적돼 있는 상태이다. 대형 마트점에서 약속대로 지킬 것은 계속 지켜주고 있지만 아직 협조할 게 분명히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대형마트들은 도민들과 친화하려고 해야 한다. 해마다 조

단위의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기부액이 생색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리고 지역 물품이 대형 마트에서 환영받고 있는 게 아니라니 그것 또한 생각해볼 문제이다. 아무리 자유 경쟁 시대라지만 지켜야 할 도리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 대형 마트점들이 이익 논리만 휘두르면 서로간에 희망이 없다. 다들 알다시피 상생의 대원칙 정립은 전국에서도 전주가 처음이다. 그때 시민들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공감대를 같이했다. 그리고 그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간곡히 말한다. 도내 대형 마트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마음을 보태야겠다. 도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보다 많이 판매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푸드 마일리지 개념에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니가 말이다.

봄철 화재사고에 경각심을

봄철 화재사고가 잦다. 봄철이라 화기를 덜 다룬다고 방심할 게 아니다. 최근에 전주시 완산구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경각심을 두루 일깨우고 있다. 저번에도 강조해 말한 바가 있지만 모든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뿐이다. 우리 집에는 별 일이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별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요즘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모든 화재 사고에는 분명히 교훈이 있다. 바로 인재라는 지적이다. 화기를 덜 다루는 불철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곤란하다. 방심하면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불철이라고 화재가 나지 말란 법은 없다. 봄철 화재 사고가 잦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 과신으로 안전 사고에 둔감해진 탓이 크다. 화재 사고에는 재산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있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신고해야 한다. 자체 진압하다가

역부족으로 뒤늦게 신고하면 위험천만이다. 목도하는 대로 오늘날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많은 차량이 신호등을 기다리는 대로에서는 소방차량이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명을 구조하는 119 차량도 그렇다. 다른 일반 운전자들이 앞서 가라고 양보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 신고자는 판단이 빨라야 한다. 화재 현장에 소방 차량이 당도해 화재를 진압할 때는 너무 때늦은 경우도 있다. 화재 사고에 관한 한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안심해서도 안 된다. 요즘 사흘이 멀다고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자고 거듭 말한다. 우리 집은 불 단속을 잘 해왔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가짐은 위험하다. 다시 말하지만 화재사고는 방심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봄철 화재 사고에 두루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0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